

##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9)

### - 사이버 세계를 채우는 크리스마스 열기 -

**실제** 세계나 가상세계나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봉 뜨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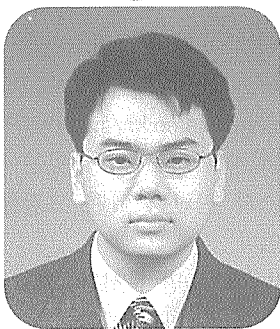
크리스마스과 새해를 맞이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인터넷 공간을 채우고 있다.

연말을 맞이하여 찾아가볼만한 인터넷 축제들을 한번 돌아본다.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라해도 어린이들일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바라는 선물을 직접 산타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있다. [http : www.santacausonline.com/](http://www.santacausonline.com/)가 바로 이곳인데 이 곳에 접속하면 산타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편지안에 받게 된다.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자녀를 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 곳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편지를 보내 보고 산타로부터 답장을 받는 기쁨을 전해줄 수도 있다. 덤으로 이곳에서 편지를 쓸 때는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선물 세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아빠들도 어께 너머로 아이들이 바라고 있는 선물을 알 수도 있다.

편지를 보냈으면 다음으로는 열심히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북극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다. 산타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도에도 나와있지 않은 북극의 산타할아버지가 살고있는 곳을 인터넷으로는 찾아가



글 / 류지창  
(주)데이콤 천리안 사업본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곳의 주소는 [http : www.northpole.com/main.html](http://www.northpole.com/main.html)이다.

이 곳에서는 오늘의 북극날씨도 알 수 있으며, 산타가 마련해둔 선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든 선물의 그림은 아이들과 함께 색칠을 해 볼 수 있는 밀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선물을 선택하고 그 화면을 프린터로 인쇄하면 멋진 그림그리기 연습장이 된다.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재미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

또한 이곳의 초기화면에서 “Cook Book”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어머니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각종 크리스마스 케익과 쿠키를 만들 수 있는 요리비법이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맛있는 케익과 멋진 그림공부를 하며 북극 여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가장 바빠지는 곳들은 따로 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하여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수 있는 곳들이다.

이 곳을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편지를 보낼 사람이 카드 사이트를 방문한 후에 화면에 제시된 맞은 디자인중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카드에 적을 글을 쓰게 된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받을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를 입력해 주면, 상대방에게 카드가 도착했다는 안내와 함께 카드를 볼 수 있는 비밀번호가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되며,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카드 사이트에 접속하고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도착된 카드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크리스마스 카드 사이트들은 인터넷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곳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http : //www.cyber-cards.com/Christmas/](http://www.cyber-cards.com/Christmas/)
- [http : //www.postcards.org/postcards/go/0120.html](http://www.postcards.org/postcards/go/0120.html)
- [http : //www.dll-lever.com/postcards/xmas.html](http://www.dll-lever.com/postcards/xmas.html)
- [http : //www.postcards.com/christmas.shtml](http://www.postcards.com/christmas.shtml)
- [http : //www.e-cards.com/occasion/christmas/](http://www.e-cards.com/occasion/christmas/)

[http : //www.iworld.net/COOL/Card/](http://www.iworld.net/COOL/Card/)

[http : //post.bluewave.co.kr/](http://post.bluewave.co.kr/)

이런 카드 사이트들은 실제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접속이 잘 안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주위의 친구들이 인터넷을 쓸 줄 안다면, 인터넷 카드를 보내보는 것도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이다.

특히 맨 마지막에 소개해둔 [post.bluewave.co.kr](http://post.bluewave.co.kr)와 [www.iworld.net](http://www.iworld.net)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카드에 한글로 글을 쓸 수도 있으며, 크리스마스 뿐만 아니라 연하장도 보낼 수 있는 곳이므로 방문해 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많은 크리스마스 사이트들이 생겨서 네티즌들을 손짓해 부르고 있다.

가볼만한 사이트들을 살펴보자. 국내 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한글로 되어 있으므로 자녀와 함께 방문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먼저 가볼 곳은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세계 여러나라의 크리스마스 전통을 소개해 둔 곳으로 주소는 [http : //kcm.co.kr/Christmas/](http://kcm.co.kr/Christmas/)이다.

이 곳에서는 직접 여러 곡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감상할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면 다음으로 는 각종 크리스마스 요리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집안을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 정보로 가득찬 곳으로 주소는 [http : //net-in.co.kr/snoopy/](http://net-in.co.kr/snoopy/)이다.

이 곳에서 “그림창고”라고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보면, 크리스마스과 관련된 예쁜 그림들이 3페이지 걸쳐 가득들어 있다.

이 그림들을 저장해 두면 문서만들기를 할 때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밀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들 가상 세계는 차갑고, 사람들의 따사로운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곳이라고 들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껴준 사람들에게 연말을 맞이하여 정성이 담긴 간단한 카드를 주고 받는다면,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도 보다 훈훈해 질 것이다. 지금 바로 카드를 보내러 가보자.